

# 觀光地에 대한 인지행동론적 研究 動向

學會 學術理事 韓炳善

學會 業務理事 申大奉

## I. 서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지의 지역에 대한 동경과 아울러 그 지역을 방문해 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신장되고 관광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면서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관광자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들 개개인의 서로 다른 욕구와 취향, 또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한 지각(Perception)의 결과 관광 환경에 대한 상이한 Image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곧 관광 주체로 하여금 관광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관광지리학 분야에서의 관광자원 또는 Wildness에 대한 인지행동론적 연구는 1960년대의 주관적 환경을 강조하는 행태지리학에서 시작되었으며 관광 목적지에 대한 지각, 인지, Mental Map, 관광행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계량적이고 실증적인 시대의 전형적인 산물로서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관광행태로 나타나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증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지는 과거에 개인의 경험과 현재의 다양한 주변 여건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인지행태론적 연구는 관광지리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국내외의 인지행태론적 연구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MDS 분석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 II. 인지행태론적 연구

### 1. 관광객 행태론

#### 1) Perception과 Cognition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심리학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심리학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관심을 갖는 분야 중의 하나가 환경 지각 및 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관광지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지리학의 분야에서도 이 환경심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와 지각에 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심리학은 1960년대 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지와 지각에 대한 일단의 고찰로서 Feimer는 환경심리학이 전통심리학과는 달리 특정 개인의 인지 및 지각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지의 Process 보다는 생태적 환경을 증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심리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태도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생태학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More와 Golledge는 지각과 인지를 일련의 연속되는 과정으로 말함으로써 심리반응의 메카니즘 속에서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각에 대한 감각기관의 생리적 자극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한편 인지는 과거 및 현재의 외부적 환경과 인간의 행태를 연결지어 주는 지식을 얻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각, 인지의 부분적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이들은 지각을 각 개인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강조하고 인지는 아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은 차이는 집단은 물론 개인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과정으로 나타나지

만 환경 또는 관광지에 대한 지각과 인지의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한편 Image 개념은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 심리학, 사회학 변수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행태적 혁명으로 보고 있다. 이 용어의 사용은 인간의 형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사물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Boulding의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건 또는 Image 공간이건 간에 결국 그것은 인간의 형태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Boulding에 의하면 모든 환경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연적, 인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환경은 Reality로 간주되어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Message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써 이렇게 해서 지각된 환경은 실제 환경과 원근의 상호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2) Attit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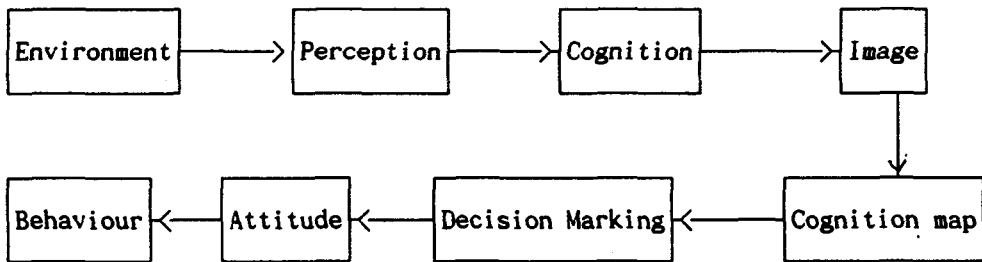
인간의 행동 연구는 능동적 의사 결정 과정의 입장과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에 의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반응적 의사 결정의 입장이 있으며 지금까지는 사회적, 제도적 변수를 무시한 개인의 능동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여기서는 능동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태도의 문제만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환경을 통해서 지각되고 인지되어진 Image를 보호 확대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 지며 또는 일정 사물, 사건에 대한 우호적, 비우호적인 감정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광객은 특정한 관광지에 대해 그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방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결국 관광 목적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개인에 의

해 지각된 환경에 대한 각각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지게 됨으로써 결국 관광 목적지로서의 선택 유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태도는 만족도 또는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Perception, Cognition의 문제 등과 태도를 관련지어 관광 목적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 2. Multi-Dimensional Scaling

### 1) 이론적 기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적 과정으로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 태도 측정의 한 방법으로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차원척도법에 대해 살펴보자. 다차원척도법은 1930년대 후반 심리학 분야에서 이용한 방법으로 대상간의 유사성(거리)이 주어졌을때 이것을 기초로 대상을 다차원 공간상에 나타내되 대상간의 거리가 유사성의 구조를 가능한 손상시키지 않도록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유사성이 낮은 대상들 끼리는 분리되고 유사성이 높은 것들은 접근하는 형태로 공간상에 배치된다.

이 다차원척도법은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지리학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공간선호와 인지공간의 해석, 교통망 Network 파악, 접근성의 측정, 시공간 분석, 확산 연구, 인구이동 패턴 해석, 상업환경의 이미지 측정, 관광지 이미지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계량적 다차원척도법

(MDS)과 비계량적 다차원척도법(non-MDS)으로 구분한다. 특히 비계량적 다차원척도법은 거리의 공리를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척도법은 1960년대 Kruskal 등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최근까지 계속 보완 발전되어 왔다.

한편 준계량적 다차원척도법과 개인차 다차원척도법도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거리의 공리 일부를 채우지 않는 데이터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른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패턴에 질적 구조의 차이가 인정될 경우에는 계층화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을 일괄 취급해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집단들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균질성을 의심해야 하고 그 대상을 계층화 하고 계층마다 데이터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3방향의 길이를 구성하는 3차원의 데이터 행렬을 이용하고 행렬간에 무시되어 얻을 수 없는 조직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2) 차원수의 설정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 1970년대 이후 공간행동의 연구에 다차원척도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척도법의 이용에 있어서 차원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각 대상들은 몇 차원의 공간에 나타낼 것이냐는 연구자들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4차원 공간 이상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차원 공간, 또는 3차원 공간에 나타내게 된다. 정해진 차원에 대한 대상들의 공간적 배치가 어느 정도 적당한지는 적합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그 지표로서는 Stress, S-Stress, 단조성 계수, 逸脫계수 등이 고안되어 있지만 Stress가 널리 이용되고 Stress치가 적을수록 적합도는 좋다. 또한 Stress는 차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어지고 유사도는 좋아진다. Kruskal에 의하면 Stress치에 기초한 적합도는 경험적으로 정해져 있다.